

주일 예배 10시 50분

2018년 4월 22일(넷째 주)

*표의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자의 묵상

예배로의 부름		인도: 김성진 집사
찬양		
*기도	주기도문	다 함께
*찬송	만 입이 내게 있으면(23장)	다 함께
*교독문	77번	다 함께
*찬송	그 참혹한 십자가에(269장)	다 함께
기도		김성진 집사
찬송	주 예수 넓은 사랑(497장)	다 함께
말씀		고명환 목사
-신앙의 길 5: 언제나 주인의 오심을 깨어 기다려야 한다. (누가복음 12장 35-48절)		
*찬송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176장)	다 함께
교회소식		담당자
기도		담당자

교회소식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금주 입을 성경: 시편 32-38편,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우리의 기도:

1.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명 속에 자라게 하소서
2. 세계 도처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3.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4. 청소년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모임시간 주일 10시50분, 수요일 오후 7시, 월-금 오전 5시20분, 토요일 오전 6시

사랑과 열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일은 있어도, 수고는 있어도
열매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에는
일과 수고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열매뿐입니다.
사랑의 결과는 언제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주님을 사랑만 하고자 하고
참된 산 사랑만 이어지고 있을 때
만사는 열매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 중심에는
사랑하는 주님만 계시고
나머지는 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 금 갓을 때
우리는 그 일 자체를 바라보며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므로 사랑하는 주님만이 남을 때
우리의 그 모든 길과 수고는
사랑하는 이와와 사이의 열매인 것입니다.

더욱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하므로
더욱 열매가 풍성하길 구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빈 그릇

조명철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바쁘고
복잡함으로 가득 찬 시간과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 저의 삶의 모두를
비워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답을 것이 많아
더 이상 답을 수 없는
항상 가득 채워져 있는 그릇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채워나갈 수 있는
빈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
주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이 순간도
제게 다가오시어서
주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채워가는
주님의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남은 삶의 시간도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주님의 빈 그릇으로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이양우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
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
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잘 순종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내 영혼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가족들을 위해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지냈을 것을
생각해 보면
더욱 주님이 저를 선택하여 주시어서,
제가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음에
감사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신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못난 부분은
주님의 십자가로 넘겨 버리고,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벗되신 주님께 마음을 묶어봅니다.

예수님!!!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PALOUSE KOREAN CHURCH



2018년 4월 22일(16주)

1205 SE Professional Mall Blvd Suite 115
Pullman, WA 99163 Phone 978-807-4092

Website: pullmanpkc.org